

가족체계와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

Family System and Male Adolescents' Loneliness

충북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안순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영희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s : An, Soonok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Yeong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system on male adolescents' loneliness. From the research results significantly different factors of family system, consisting of family differentiation, family flexibility, boundary between parents and male adolescents, conflict resolved in parents, and male adolescents' cohesion with mother and father, explained each aspect of male adolescents' loneliness including lack of intimacy, social relationship network, and belonging according to their school types. The boundary between parents and male adolescents was a critical factor explaining the lack of intimacy of male adolescents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family flexibility was a congruous factor having an impact on the lack of belonging of male adolescents both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public schools.

주제어(Key Words): 가족체계(family system),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Male Adolescents' Lonelines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들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로서 성숙한 발달, 사회적 역할 정의, 인지 발달, 상급학교로의 진학, 성적 욕구의 출현, 정체성 탐구, 부모로부터의 분리, 친밀한 관계에 대한 탐색 등과 같은 중요한 발달과업들을 수행하게 된다(Brennan, 1982). 이러한 발달과업들이 성취는 청소년기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청소년 부적응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Larsen, Coy & Collins, 1998), 약물 사용(Johnson, O' Malley & Bachman, 1994)과 반사회적 행동(Lyons, 2004) 등의 행동적 부적응 문제와 정서적 혼란(Larson & Richards, 1994),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문제 또한 심각하다(O'hannessian, Lerner, Lerner & von Eye, 1996). 이에 따라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최근 연구들은 청소년의 외로움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Lyons, 2004; Neto & Barros, 2003).

Russell, Peplau & Cutrona(1980)는 청소년의 외로움이 친밀감, 사회적 관계 지지망 및 소속감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한다. 부모, 가족, 또래와 친밀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거나(Rew, 2001),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지지망의 부족 혹은 상실은 청소년의 외로움을 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Stokes, 1985). 또한, 대인 관계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소속감 부족 또한 외로움의 핵심 요소임이 밝혀지고 있다(김영숙, 1992; Joiner, Catanzaro, Rudd & Rajab, 1999).

청소년은 특히 발달단계상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높고, 사회적 관계 지지망과 소속감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는 특징이 있다(Brennan, 1982; Russell 외 그의 동료들, 1980). 높은 욕구와 기대에 비해 청소년이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oodward, 1998).

청소년의 외로움은 학업 중퇴, 자살 및 자살에 대한 생각(Rokach, 2001), 음주와 흡연(김옥수, 1997), 반사회적 행동(Lyons, 2004), 거식증 또는 폭식증(Stewart, 2004),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 발달 저해(김영숙, 1992)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외로움이 가져오는 부적응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었고 청소년의 외로움을 야기하는 원인을 찾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외로움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okach, 2002; Uruk & Demir, 2003).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은 가족체계라는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체계 안에서 개인이 맺어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개인은 자신의 심리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적응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정체성은 부적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학자들은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하여 왔다(Hampeon, Hulgus & Beavers, 1991).

Santisteban, Tejada, Dominicis & Szapocznik(1999)은 기능적 가족에 비해 역기능적 가족의 자녀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기능을 가질 수 있어 초기 부모-자녀 결합형태의 불안정성과 가족 역기능이 외로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Olson, Sprenkle & Russell(1979)은 순환적 가족체계 모델을 통하여 부모 및 기타 가족구성원과의 친밀한 관계가 외로움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갖게 한다고 보았고, Hojat(1982)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필요할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이 외로움을 적게 느낀다고 했다.

이와 같이 가족체계적 입장은 개인이 나타내는 병리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내의 대인관계의 갈등과 역기능적 가족체계를 반영하고 있다(Becvar & Becvar, 198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외로움을 유발시키는 가족변인을 가족 지지(조아미, 반희정, 2003), 부모-자녀 상호작용(Dekovic, Janssens & Van As, 2003), 가족의 의사소통(김순옥, 1990) 등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가족체계를 통한 총체적인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외로움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특히 가족체계의 특성상 세부적인 하위체계와 하위체계간의 역동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들 가족의 하위체계간의 역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노지현, 2001).

또한 일반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청소년의 구분에 따라 가족체계가 외로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이들 두 집단과 가족체계의 관계와 외로움과의 관계로 분리되어 연구되어왔다. 소년원수감 청소년 등의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모양육태도(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가족지지(Windle, 1992), 부모-자녀 관계(Wilson, 1980) 등에 의해 외면화된 행동문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도 양육태도나 가족지지와 같은 가족변인들이 외면화된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양돈규, 임영식, 1998), 비행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족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최명규와 양익홍(1999) 등의 연구를 제외하면 이러한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가족변인과의 관계를 한 논문에서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Goswick & Jones(1981)는 일반 남자 성인과 남자 성인 재소자의 외로움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 중에서도 남성의 외로움을 강조하였다. 성인 재소자들과 일반 성인을 비교한 논문들도 이들 두 집단 간의 외로움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Rokach & Cripps, 1999).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소년원수감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Salmen(1996)의 연구가 유일한 논문이며,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이들 두 집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거나, 동시에 살펴보더라도 가족체계와 외로움을 따로따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까지 일반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한 논문에서 살펴볼 수 없었다(옥정 외 2인, 2001; Rokach,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학교구분에 따라 다차원적인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 외로움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아 가족체계 내에서 청소년의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예방책을 찾아내고, 실제 상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구조적 가족체계

Minuchin(1974)에 의해 이론화된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구성원들의 상호교류 패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체계의 기본적인 구조와 조직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상호교류를 통해 언제, 어떻게,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가 결정되어지며, 이들 상호교류 패턴에 따라 체계가 유지되어 나간다.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교류 패턴의 폭이 넓고, 대안적인 상호교류 패턴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즉, 가족은 내적·외적 변화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게 준거틀을 제공하여 연속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도록 체계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와 특성을 지닌 가족내부의 구조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가족체계로 가족구조와 상호교류 패턴을 파악한 선행연구는 가족하위체계, 가족경계, 가족위계질서, 가족적응 등으로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노지현, 2001; 송정아, 최규련, 2002).

구조적 가족치료 관점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가족구성원과 하위체계 사이의 가족경계를 통하여 가족의 분화를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밀착되거나 분리된 경계수준에 있는 가족체계의 역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분화수준이 높은 가족의 자녀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나(Gavazzi, 1993), 가족의 분화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는 충동성,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가족 내 문제, 낮은 학업성취, 결석 등의 학교문제, 친구관계 문제, 비행, 자살시도, 우울 및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남순현, 한성열,

2002).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분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족은 물론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의 융통성은 순환모델에서 '적응성', Beavers의 체계 모델에서 '가족역량'의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이 개념은 변화하는 가족생활주기와 개인의 발달상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다. 가족의 융통성을 낮게 지각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높았고(Kaslow, Thompson & Brooks, 2000),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정성(negativity) 역시 갈등이나 다른 가족기능에 비해 융통성이 결여된 상태, 즉 경직성 자체에서 기인되는 문제라고 한다(Greene & Anderson, 1999).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가족의 융통성에 따른 가족의 기능성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족의 경직성이 가져오는 다양한 자녀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 하위체계간의 경계를 통해 설명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이다. Bowen(1966)의 가족치료에서 말하는 삼각관계나 구조주의 가족치료에서의 제휴가 바로 부모·자녀 세대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내용들이다. 주로 자녀를 끌어들이는 삼각관계의 형성은 일시적으로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가족의 정서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송정아, 최규련, 2002). 연합과 동맹으로 나타나는 제휴 역시, 지배적인 성향을 띠거나 융통성 없는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극대화시킨다(김유숙, 1998). 가족체계, 가족구조, 가족과정 등에서 이런 현상은 흔히 발생하지만 가족치료 임상연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특성 중 부모간의 갈등은 가족 내에서 이해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 흔히 부부갈등으로 연구되는 이 개념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이민식, 오경자, 2000). 체계이론에 근거해 볼 때, 부부 상호작용은 다른 가족관계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며(Brody & Ge, 2001), 가족 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가 조화롭고 지지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자녀도 조화롭고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또한 해결되지 못한 부모간의 갈등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나타나는 행동문제와 더 많은 관계가 있었고(Burman, John & Margolin, 1987), 공격성과 외현화된 증상(Dadds & Powell, 1991), 우울(Riesch, 2003)과 심리적 적응(Jaycox & Repetti, 1993)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부모간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해 갈등이 만성화되어 나타나는 것들이며, 이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부모간의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역기능적 가족체계에서 나타나는 부모체계와 자녀체계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 관계의 질은 특히 반사회적 행동과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Dekovic 외 그의 동료들, 2003).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청소년과 부모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반사회적 성향이 없는 청소년과 부모 관계와 비교할 때, 친밀감이 부족하고, 성숙도가 낮고, 서로를 헐뜯고, 분노하며, 방어적인 특징이 있었다(Snyder & Huntley, 1990). 이는 부모-자녀 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부모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에 대해 보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갈등이 그 대상이 어머니인지 또는 아버지인지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청소년기의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포출한다(Anderson, Hetherington & Clingempeel, 1989). Furman & Buhrmester(199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갈등대상이 주로 어머니인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다룰 때 자녀의 성에 따른 갈등차이에 보다 초점을 두고, 부모의 성에 따른 갈등 차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소홀해왔다(Clark-Lempers, Lempers & Ho, 1991).

부모와의 갈등 이외에도 적절한 부모지지와 양육태도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적절한 부모지지는 청소년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조아미, 반희정, 2003). 적절한 부모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우울(Cheng, 1998), 정서문제(Helsen, Vollebergh & Meeus, 2000), 부적응(이경주, 신효식, 박재현, 김세규, 오화은, 최종상, 서호석, 1998) 등의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 역시 문제행동을 나타내고(Dahlberg, 1998),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높은 도덕적 추리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it, Bates & Dodge, 1997).

이미옥(2004)은 이와 같은 부모와의 갈등, 부모지지, 양육태도 등이 부모와의 응집성 수준을 평가하는 내용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가족의 응집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김순옥, 1990), 조명희(2001)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가족의 응집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가 어머니와의 응집성과 아버지와의 응집성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고, 이러한 지각의 차이는 가족체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모와의 응집성 수준을 어머니와의 응집성과 아버지와의 응집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제까지 가족의 분화, 가족의 융통성,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부모간 갈등해결, 어머니와의 응집성, 아버지와의 응집성 등의 6가지 가족체계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요인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수의 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를 가족의 분화, 가족의 융통성,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부모간 갈등해결, 어머니와의 응집성, 아버지와의 응집성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인 가족체계의 역동을 밝히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외로움

인간은 생애의 전 과정에 걸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Shearer & Davidsizer, 1994).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은 긍정적인 인성특성을 가지며(Karaday, 1994), 부모는 물론 가족구성원과의 친밀한 관계가 부족할 때 외로움은 증가한다(Rew, 2001). 아동

기 외로움의 관련변인을 밝힌 김성해와 송순(2001)은 친밀한 애착관계나 의미 있는 우정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 중 20~50% 정도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밝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할 때 외로움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Stokes(1985)는 다른 원인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 지지망이 외로움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며, 폭넓은 사회적 관계 지지망을 가진 청소년은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밝혔다.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Salmen(1986)의 연구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분리 등 총체적인 사회적 관계 지지망의 부족이 외로움을 심화시킴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 부모, 자녀와 같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상실했거나 그러한 대상이 부족하면 정서적 외로움이 증가하고, 때때나 동료, 이웃, 친구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지지망이 부족할 때는 사회적 외로움이 증가한다고 선행연구는 밝히고 있다(Weiss, 1973). 즉 기존연구들은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이 외로움의 한 원인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대부분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들은 외로움을 친밀한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서 등으로 정의해 왔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은 외로움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이기 때문에(Perlman & Peplau, 1982), 반드시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Russell 외 그의 동료들, 1980). 즉, 인간은 지리적인 고립 또는 사회적 고립 못지않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속감 부족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높게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Joiner 외 그의 동료들(1999)은 이러한 소속감의 부족이 외로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가족이나 동료집단에서의 소속감 또는 연결감이 부족할 때도 외로움이 증가한다고 한다(김영숙, 1992).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외로움 중 많은 부분이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 부족,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으로 인해 나타남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청소년의 외로움 연구에 있어 이들 세 변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 외로움을 친밀감 부족,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 외로움으로 나누어 청소년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설명하고자 한다.

3. 가족체계와 청소년의 외로움

선행연구들은 역기능적 가족체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연구해왔고, 청소년이 속한 가족체계의 역기능성이 이들의 자기 비하적 태도, 우울감, 불안, 다양한 정신병리적 증후 등의 심리적 문제와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을 밝혀냈다(Prange, Greenbaum, Silver, Friedman, Kutash & Duchnowski, 1992). 섭식장애와 자살,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기능상의 문제를 내재화된 문제행동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이 (Barber, 1992), 외로움은 개인의 주관적인 소외의 감정이 내면으로 침전된 상태의 반영이므로 내재화된 문제유형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외로움과 같이 개인이 나타내는 역기능적 병리는 대인관계의 갈등과 가족의 잘못된 체계의 반영이라는 것이 가족체계 이론의 입장이다(Becvar & Becvar, 1988). 개인이 갖는 병리는 개인의 정신내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 안에서 상호의존적인 다른 하위체계들이 갖는 병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로움이라는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가족이라는 전체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실증적 자료들이 있다. 이들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청소년의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Carlo, Roesh & Melby, 1998; Stice & Gonzales, 1998). 또한 부모와 부적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아동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또래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여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청소년의 경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아 존중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 지지망과 수용을 얻는데 무능해져 외로움이 증가 된다고 한다 (Patterson, Reid & Dishion, 1992).

Marcoen & Brumagne(1985)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개체로서의 분리를 추구하면서도 부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로결정이나 취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부모의 조언을 받고자 하며, 우울하거나 불행하게 느껴질 때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부모를 꼽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Weiss(1973)가 구분한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 중 정서적 외로움은 개인이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감을 부족하게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외로움은 가족이 가진 강점과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적 인 관련이 있다(Brage, Meredith & Woodward, 1993). Shaver & Rubenstein(1980)은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횡단 연구에서도 부모와 만족할만한 관계를 갖지 않았던 청소년은 대학생활에서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밝혔다(Hojat, 1982).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체계내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외로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체계와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 외로움간의 관계를 밝혀 다양한 청소년의 외로움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족체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특수 목적학교 1곳에 다니고 있는 14-15세, 17-18세 사이의 남자 청소년이었다. 질문지는 각 학교에 보내져, 수업시간을 통해 담당 교사가 설문지를 지도, 시행한 후 회수한 것을 연구자가 다시 수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비조사는 총 35명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22일에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004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와 10월 6일 당일에 한한 설문 시행을 포함하여 총 4일간 시행되었다. 총 50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수거되었으나, 질문지 내용이 부실

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4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특수 목적학교에서 수거한 질문지에서 설문지 내용 중 부모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없다고 응답한 질문지는 제외되었다.

2. 측정도구

1) 가족체계

가족체계는 Perosa & Perosa(1990)가 개발한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척도(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Revised: SFIS-R)를 참고로 이미옥(2004)이 수정·번안한 한국형 가족 체계 진단 척도(Family System Diagnosi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5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6개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구성원의 분화수준과 지지 정도를 평가하는 '가족의 분화' (16문항),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도와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가족의 융통성' (5문항), 부부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삼각관계, 협력, 우회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6문항),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부모간 갈등해결' (8문항), 어머니 및 아버지와 자녀간의 갈등해결 정도가 높고,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어머니와의 응집성' (10문항)과 '아버지와의 응집성'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가족체계의 하위요인이 긍정적으로 기능함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90, .77, .63, .83, .86, .87이었다.

2) 청소년의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Russell, Peplau &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RULS)을 김옥수(1997)가 한국형으로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3개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감을 평가하는 '친밀감 부

족' (10문항),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지지자가 없다는 느낌을 평가하는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4문항), 소속감 및 관계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를 평가한 '소속감 부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의미를 가진다.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90, .76, .55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464부의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일반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청소년의 통계량은 모형적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남자 청소년의 학교는 일반 남자 청소년이 81.9%,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이 18.1%였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연령은 중학생이 49.5%, 고등학생이 50.5%였고,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은 중학생이 25.3%, 고등학생이 74.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3.7%, 둘째 43.5%, 셋째 8.6%, 외동 4.2%이고,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출생순위는 첫째 31.3%, 둘째 33.8%, 셋째 15.0%, 외동 20.0%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일반 남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 81.4%, 잘사는 편 10.0%, 못사는 편 8.6% 순이었고,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은 보통 61.9%, 못사는 편 32.1%, 잘사는 편 6.0% 순이었다. 가족구조는 부모의 유무, 즉 부모가 있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그리고 형제 유무를 질문했는데, 일반 남자 청소년은 부모가 있는 경우가 89.4%, 한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 일반 남자 청소년(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중학생	186(49.5)/21(25.3)
	고등학생	190(50.5)/62(74.7)
	계	376(100.0)/83(100.0)
경제수준	못 사는 편	37(10.0)/27(32.1)
	보통	301(81.4)/52(61.9)
	잘 사는 편	32(8.6)/5(6.0)
계	370(100.0)/84(100.0)	
부학력	중졸이하	36(9.8)/28(36.4)
	고졸	195(52.8)/47(61.0)
	대졸이상	138(37.4)/2(2.6)
계	369(100.0)/77(100.0)	
부직업	전문/자유/사무직	138(41.0)/11(18.0)
	기술/생산/노무직	74(22.0)/26(42.6)
	자영업	84(25.0)/7(11.5)
	판매/서비스직	40(11.9)/17(27.9)
계	336(100.0)/61(100.0)	
출생순위	첫째	157(43.7)/25(31.3)
	둘째	156(43.5)/27(33.8)
	셋째	31(8.6)/12(15.0)
	외동	15(4.2)/16(20.0)
계	359(100.0)/80(100.0)	
가족구조	부모가 있는 경우	336(89.4)/30(35.7)
	한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40(10.6)/54(61.9)
	계	376(100.0)/84(100.0)
형제	형제가 있는 경우	344(95.8)/64(80.0)
	형제가 없는 경우	15(4.2)/16(20.0)
	계	359(100.0)/80(100.0)
모학력	중졸이하	54(14.6)/22(33.8)
	고졸	242(65.2)/41(63.1)
	대졸이상	75(19.9)/2(3.1)
계	371(100.0)/65(100.0)	
모직업	전문/자유/사무직	61(17.5)/6(10.3)
	기술/생산/노무직	28(8.0)/6(10.3)
	자영업	59(16.9)/11(19.0)
	판매/서비스직	30(8.6)/7(12.1)
	주부	171(49.0)/28(48.3)
계	349(100.0)/58(100.0)	

가 10.6%인데 반해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은 부모가 있는 경우가 35.7%, 한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가 61.9%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남자 청소년은 형제가 있는 경우가 95.8%, 없는 경우가 4.2%였고,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은 형제가 있는 경우가 80.0%, 없는 경우가 20.0%였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 학력은 고졸 52.8%, 대졸이상 37.4%, 중졸이하 9.8% 순이었고,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 학력은 고졸 61.0%, 중졸이하 36.4%, 대졸이상 2.6% 순이었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어머니 학력은 고졸 65.2%, 대졸이상 19.9%, 중졸이하 14.6% 순이고,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어머니 학력은 고졸 63.1%, 중졸이하 33.8%, 대졸이상이 3.1%였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 직업은 전문/자유/사무직이 41.0%, 기술/생산/노무직 22.0%, 자영업 25.0%, 판매/서비스직 11.9%로 전문/자유/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의 경우 전문/자유/사무직 18.0%, 기술/생산/노무직 42.6%, 자영업 11.5%, 판매/서비스직 27.9%로 기술/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가장 많았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어머니 직업은 전문/자유/사무직 17.5%, 기술/생산/노무직 8.0%, 자영업 16.9%, 판매/서비스직 8.6%, 주부 49.0%로 나타났고,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어머니의 경우 전문/자유/사무직 10.3%, 기술/생산/노무직 10.3%, 자영업 19.0%, 판매/서비스직 12.1%, 주부 48.3%로 나타났다.

2.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와 외로움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15에서 .62, -.27에서 .64로 나타났다($p < .05$). 회귀분석에서 분산비율을 살펴 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 3〉과 같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분화($\beta = -.18$,

<표 2>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와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 일반 남자 청소년(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

	가족의 분화	가족의 융통성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부모간 갈등 해결	어머니와의 응집성	아버지와의 응집성	친밀감 부족 외로움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	소속감 부족 외로움
가족의 분화									
가족의 융통성	.51*** (.55***)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50*** (.42***)	.39*** (.11)							
부모간 갈등해결	.51*** (.65***)	.44*** (.53***)	.51*** (.30**)						
어머니와의 응집성	.55*** (.65**)	.53*** (.52***)	.39*** (.36**)	.45*** (.54***)					
아버지와의 응집성	.53*** (.61***)	.50*** (.51***)	.46*** (.38***)	.49*** (.53***)	.62*** (.64***)				
친밀감 부족 외로움	-.32*** (-.39***)	-.15*** (-.14)	-.30*** (-.56***)	-.29*** (-.31**)	-.24*** (-.27*)	-.34*** (-.28*)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	-.31*** (-.34**)	-.23*** (-.42***)	-.25*** (-.47***)	-.22*** (-.20)	-.26*** (-.37**)	-.33*** (-.39***)	.62*** (.29**)		
소속감 부족 외로움	-.22*** (-.16)	-.28*** (-.40***)	-.17** (.04)	-.18*** (-.17)	-.28*** (-.14)	-.27*** (-.15)	.39*** (-.09)	.50*** (.33**)	
평 균	3.04 (2.84)	2.89 (2.84)	3.35 (3.14)	2.88 (2.76)	3.13 (2.98)	2.99 (2.87)	1.73 (1.85)	1.68 (1.74)	2.11 (2.22)
표준편차	.53 (.55)	.57 (.62)	.50 (.61)	.63 (.54)	.54 (.56)	.59 (.63)	.62 (.68)	.61 (.68)	.57 (.56)

*p<.05. **p<.01. ***p<.001.

<표 3>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일반 남자 청소년(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n=368, 70)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t값	R ²	F
친밀감 부족 외로움	가족의 분화	-.18** (-.19)	-2.79 (-1.20)	.160 (.354)	12.77*** (7.22***)
	가족의 융통성	.14* (.01)	2.36 (-.05)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11 (-.54***)	-1.76 (-4.76)		
	부모간 갈등해결	-.10 (.01)	-1.70 (.05)		
	어머니와의 응집성	.00 (.12)	.05 (.86)		
	아버지와의 응집성	-.21** (-.09)	-3.17 (-.66)		

*p<.05. **p<.01. ***p<.001.

p<.01), 가족의 융통성($\beta=.14$, p<.05), 아버지와의 응집성($\beta=-.21$, p<.01)이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일반 남자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 대해 16.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가족의 분화 수준과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일반 남자 청소년은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더 낮게 느끼지만, 가족의 융통성이 높으면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beta=-.54$, p<.001)만이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은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35.4%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 있어서 부모·자녀 세대간의 명확한 경계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며, 부모·자녀 세대간 경계가 모호한 경우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이 높게 지각됨을 보여준다.

2)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분

화($\beta=-.15$, p<.05), 아버지와의 응집성($\beta=-.21$, p<.01)이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일반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에 대해 1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가족의 분화 수준과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일반 남자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을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융통성($\beta=-.45$, p<.01),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beta=-.35$, p<.01), 부모간 갈등해결($\beta=-.29$, p<.05) 순으로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요인들은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을 35.3%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가족이 융통적이고, 부모·자녀 세대간의 경계가 명확하고, 부모간의 갈등해결 정도가 높을수록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소속감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소속감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다.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모든 경우에서 가족의 융통성($\beta=-.15$, p<.05), ($\beta=-.46$,

<표 4> 남자 청소년의 학교유형에 따라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일반 남자 청소년(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n=368, 70)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t값	R ²	F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	가족의 분화	-.15* (-.10)	-2.25 (-.64)	.124 (.353)	9.74*** (7.17***)
	가족의 융통성	-.02 (-.45**)	-.31 (-3.62)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07 (-.35**)	-1.10 (-3.04)		
	부모간 갈등해결	.01 (-.29*)	.14 (-2.07)		
	어머니와의 응집성	-.01 (.04)	-.17 (.25)		
	아버지와의 응집성	-.21** (-.20)	-3.09 (-1.42)		

*p<.05. **p<.01. ***p<.001.

<표 5>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소속감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일반 남자 청소년(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n=368, 70)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t값	R ²	F
소속감 부족 외로움	가족의 분화	-.04 (-.04)	-.59 (-.24)	.100 (.132)	7.87*** (2.73***)
	가족의 융통성	-.15* (-.46**)	-2.41 (-3.17)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01 (.20)	.10 (1.50)		
	부모간 갈등해결	.00 (.08)	.04 (.47)		
	어머니와의 응집성	-.10 (.06)	-1.44 (.39)		
	아버지와의 응집성	-.13 (-.04)	-1.85 (-.27)		

*p<.05. **p<.01. ***p<.001.

p<.01)만이 소속감 부족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일반 남자 청소년의 소속감 부족 외로움에 대해 10.0%,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소속감 부족 외로움에 대해 1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두 가지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가족의 융통성을 높게 지각하는 남자 청소년은 소속감 부족 외로움을 더 낮게 느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학교구분에 따라 다차원적인 가족체계가 친밀감 부족,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 외로움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살펴본다.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예방책을 가족체계 내에서 찾고, 이를 실제 상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가족체계에 대해 가족의 분화와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낮고, 가족의 융통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융통성이 오히려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높게 보고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외로움이 역기능적 가족체제로 인해 야기된다고 밝히고 있으나(Becvar & Becvar, 1988; Carlo, Roesch & Melby, 1988), Lavee & Olson(1991)은 융통적인 가족은 가족의 역할과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내의 스트레스나 긴장상황에 대해 심리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 남자 청소년이 가족의 융통성 정도가 높지 않거나, 구조적 또는 경직적일 때 가족 구성원의 개입 또는 관여를 관심으로 느끼거나, 친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족의 분화와 아버지와의 융통성은 동 연령대의 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의 친밀감 외로움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안순옥, 2005), 이들 변인들이 일반 청소년들의 친밀감 외로움을 공통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는 유일하게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이 경험하는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설명해주는 요인일 뿐 아니라 설명력도 35.4%로 매우 높았다.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역기능적일 때 아동은 부정적 정서 조절에 실패하게 되며(Howes, Cicchetti, Toth & Rogosch, 2000), 비행 청소년의 가족의 경우 정상 청소년 가족에 비해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부모·자녀 간에 경계가 없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Jacob, 1975)와 맥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 체계가 역기능적으로 기능할 때 친밀감과 직결되는 애정적인 결속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녀의 비행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김윤희, 1990). 따라서 일반 남자 청소년 가족과는 달리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에는 부모·자녀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이 일반 남자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처럼 가족의 분화, 아버지와의 응집성, 가족의 융통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다는 부모·자녀 세대간의 명확하지 못한 경계가 이들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대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둘째, 일반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족체계 요인은 아버지와 의 응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동성의 부모를 모델링 하고, 어머니에 비해 가족 중 가장 사회관계에서 유능한 존재인 아버지는 청소년 자녀에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와 의 응집성이 높은 일반 남자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반 남자 청소년은 가족의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는 충동성, 자살 시도, 우울,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의해(남순현, 한성영, 2002)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또한 한국가족의 분화 수준이 서구 문화권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할 때(손정영, 1990) 가족의 분화수준을 높이고, 자녀에게 필요한 지지가 무엇인지를 교육할 수 있는 정기적인 부모교육 및 가족세미나를 개최할 필요성을 본 연구결과는 제기해준다.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일반 남자 청소년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일반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을 설명하는 요인은 아버지와 의 응집성, 가족의 분화 승인 반면,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에 대한 가족체계의 설명력은 가족의 융통성, 부모 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부모간 갈등해결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수감 청소년의 부

모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는 특징이 있으며(박영신, 김의철, 2004), 경제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을 주기 때문에 가족은 청소년이 겪는 변화에 대해 경직적으로 대처하기 쉬운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구조에서는 부부갈등도 빈번히 나타나는데(Eileen & McGreevy, 1994), 이 같은 갈등을 불안정한 관계로 회피하거나, 해결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조운정과 김정신(2000)은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가족체계 중에서도 부부체계에 문제가 있을 때 청소년은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체계 중 위계적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부모체계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부모·자녀 세대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데 제약을 줄 것이다. 이는 상호교류 패턴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가족체계 요인들 간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도 가족체계 하위요인들간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은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해 이차적인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Salmen, 1986), 반대로 가족체계 및 가족 하위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역기능으로 인해 수감 전에 이미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였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의 중심축에 있는 소년원수감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외로움을 포함한 심리적 문제가 그들 스스로 다루기에는 벅찬 문제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 지역, 국가별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지역은 접근의 용이성을 최대한 높이고 가족이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을 잘 파악해 복지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고, 정부는 지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재정적 보조 및 정책수립 및 개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지 서비스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이 제 기능을 다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교육, 고용, 생활보조 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가족의 융통성은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 모두의 소속감 부족 외로움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Becvar & Becvar

(1988)는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고, 가족의 분리감 보다는 소속감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과업이기도 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려는 노력과 가족의 경직성이라는 상충되는 현실은 가족의 융통성을 위협하는 요인일 수 있다. 또한 소속감 부족 외로움에 가족체계의 하위요인 중 남학생의 경우 가족의 융통성이, 여학생은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안순옥, 2005)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남자 청소년의 소속감 부족 외로움은 가족의 융통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남자 청소년의 다양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것과 달리, 어머니와의 응집성은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 가족체계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에(강완숙, 2000; 김순옥, 1990)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은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비해 아버지와의 응집성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남자 청소년과 소년원 남자 청소년의 학교구분에 따라 가족체계가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제외한 가족의 분화, 가족의 융통성, 부모 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부모간 갈등해결, 아버지와의 응집성 등의 가족체계 하위변인들이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 사회적 관계 지 지망 부족 외로움, 소속감 부족 외로움을 설명하는 가족체계 하위변인들에는 차이가 있어 각각의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은 상이한 가족체계의 변인들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체계 및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을 다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한 연구목적이 타당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족의 융통성이 일반 남자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융통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의 융통성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융통성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친밀감 부족 외로움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를 청소년이 평가하였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은 가족체계에 대한 평가가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가족체계 기능성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이 따로 평가한 가족체계들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일반 남자 청소년에 비해 외로움을 설명하는 가족체계의 하위변인들에 차이가 있었고, 각 변인들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수감 남자 청소년은 이미 외현화된 부적응 문제의 표출로 인해 격리되어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가족체계와 청소년의 비행과 반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 이들 두 변인 사이에서 청소년의 외로움이 수행하는 매개효과를 밝혀 환경적 요인으로써의 가족체계, 개인특성으로써의 외로움과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해, 송 순(2001). 아동기 외로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77-93.
- 김순옥(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개방성과 그 귀인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논문.
- 김영숙(1992). 청소년 고독감과 대인관계 만족도 및 반응행동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수(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한국간호학회지*, 27(4), 871-879.
- 김유숙(1998).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김윤희(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33-49.
- 노지현(2001).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박영신, 김의철(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 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87-115.
- 손정영(1990). 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재조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최규련(2002).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2th Eds). 도서출판 하우.
- 안순옥(2005). 가족체계와 청소년의 외로움.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양돈규, 임영식(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 옥 정, 오윤희, 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이경주, 신효식, 박재현, 김세규, 오하은, 최종상, 서호석(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0, 29-39.
- 이미옥(2004). 가족체계 진단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3), 179-193.
- 이민식, 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조명희(2001).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응용과학연구*, 10(1), 219-228.
- 조아미, 반희정(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0(1), 249-276.
- 최명규, 양익홍(1999). 청소년기 품행장애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1), 429-446.
- Anderson, E. R.,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 (1989).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hips at puberty: Effects of family contex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 310-334.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Becvar, D. S., & Becvar, R. J. (1988).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Needham Heights, Massachusetts: Allyn & Bacon, Inc.
- Bowen, M. (1966).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7, 345-374.
- Brage, D., Meredith, W., & Woodward, J. (1993).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Midwestern adolescents. *Adolescence*, 28, 685-693.
- Brennan, T. (1982). Loneliness at adolescence.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69-290). New York: Wiley.
- Brody, G. H., & Ge, X. (2001). Linking parenting processes and self-regulation to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alcohol us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82-94.
- Burman, B., John, R. S., & Margolin, G. (1987). Effects of marital of parent-child relations

- on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91-108.
- Carlo, G., Roesch, S. C., & Melby, J. (1998). The multiplicative relation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to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3), 266-290.
- Cheng, C. (1998). Getting the right kind of support: Functional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845-849.
- Clark-Lempers, D. S., Lempers, J. D., & Ho, C. (1991).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3), 296-315.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Dadds, M. R., & Powell, M. B. (1991). The relationship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marit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8.
- Dahlberg, L. L. (1998). Youth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major trends, risk factors, and prevention approach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 259-272.
- Dekovic, M., Janssens, J. A. M. A., & Van As, N. M. C. (2003). Family predictors of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Family Process*, 42, 223-235.
- Eileen, M. M., & McGreevy, M. S. (1994). Family correlates of social skill deficits in incarcerated and nonincarcerated adolescents. *Adolescence*, 29(113), 117-133.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avazzi, S.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 Goswick, R., & Jones, W. (1981). Loneliness, self-concept, and adjustm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07, 237-240.
- Greene, S. M., & Anderson, E. R. (1999). Observed negativity in large family systems: Incidents and re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3), 372-392.
- Hampson, R. B., Hulgus, Y. F., & Beavers, W. R. (1991). Comparison of self-report measures of Beavers system model and Olson's Circumflex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3), 326-340.
- Helsen, M., Vollegergh, W., & Meeu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29, 319-335.
- Hojat, M. (1982).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 *The Journal of Psychology*, 112, 129-133.
- Howes, P. W., Cicchetti, D., Toth, S. L., & Rogosch, F. A. (2000). Affective, organiza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ing families: A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95-110.
- Jacob, T. (1975). Family interaction in disturbed and normal families: A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2, 33-65.
- Jaycox, L. H., & Repetti, R. L. (1993). Conflict in

- families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3), 344-355.
- Johnson, L. D., O'Malley, P. M., & Bachman, J. G. (1994).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from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1975-1993*(NIH Publication No. 94-3810).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Joiner, T. E., Jr., Catanzaro, S., Rudd, M. D., & Rajab, M. H. (1999). The case for a hierarchical, oblique, and bidimensional structure of loneli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47-75.
- Karaday, F. (1994).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heir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nd the relation of these variables with some of thei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urk Psikoloji Dergisi*, 9, 15-25.
- Kaslow, N. J., Thompson, M. P., Brooks, A. E. (2000). Ratings of family functioning of suicidal and nonsuicidal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4), 585-599.
- Larson, B., Coy, K. C., & Collins, W. A.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9, 817-832.
- Larson, R., & Richards, M. H. (1994). *Divergent realities: The emotional lives of mothers, fathers, and adolescents*. New York: Basic Books.
- Lavee, Y., & Olson, D. H. (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 Lyons, J. B. (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N. Y.: New York University Press.
- Marcoen, A., & Brumagne, M. (1985). Loneliness among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25-1031.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Neto, F. (2002). Loneliness and acculturation among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in Portugal.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630-647.
-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1996).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perceptions of the self, and emotional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5, 159-183.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 R.: Castilia Press.
- Perlman, D., & Peplau, L. A.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1-20). N. Y. : Wiley Interscience.
- Perosa, L., & Perosa, S. (1990). *The revision and validation of the 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 year

-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range, M. E., Greenbaum, P. E., Silver, S. E., Friedman, R. M., Kutash, K., & Duchnowski, A. J. (1992).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pathology among adolescents with severe emotional disturbanc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1), 83-102.
- Rew. L. (2001). Relationships of sexual abuse, connectedness, and loneliness to perceived well-being in homeless youth. *JSPN*, 7(2), 51-63.
- Riesch, S. K. (2003).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on parents and young adolescents from extreme family type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6(4), 162-175.
- Rokach, A. (2001). Criminal offense type and the cause of loneli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3), 277-291.
- Rokach, A. (2002). Determinants of loneliness of young adult drug user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6), 613-630.
- Rokach, A., & Cripps, J. E. (1999). Incarcerated men and the perceived sources of their lonel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3(1), 78-89.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almen, R. (1986). Predictors of loneliness in a prison population: The social skills of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Guelph, Ontario, Canada.
- Santisteban, D. A., Tejada, M., Dominicis, C., & Szapocznik, J. (1999). An efficient tool for screening for maladaptive family functioning in adolescent drug abusers: The problem oriented screening Instrument for teenager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5(2), 197-206.
- Shaver, P., & Rubenstein, C. (1980). Childhood attachment experience and adult lonelines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42-73. Beverly Hills, C. A.: Sage Publications.
- Shearer, R., & Davidhizer, R. (1994). It can be never be the way it was: Helping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 Care Nurse*, 12(4), 60-65.
- Snyder, J., & Huntley, D. (1990).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In P. E. Leone(Ed), *Understanding troubled and troubling youth* (pp. 194-225).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C. A.
- Stewart, W. (2004). The role of perceived loneliness and isolation in the relapse from recovery in patients with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2(2), 185-362.
- Stice, E., & Gonzales, N. (1998). Adolescent temperament moderates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antisocial behavior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1), 5-31.
- Stokes, J. P. (1985). The relation of social network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to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981-990.
- Uruk, A. C., & Demir, A. (2003). The role of peers and families in predicting the loneliness level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7(2), 179-193.

Weiss, R.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 A.: MIT Press.

Wilson, H. (1980). Parental supervision: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203-235.

Windle, M.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30.

Woodward, J. (1988). *The solitude of loneliness*. Lexington, M. A: Lexington Books.

(2005년 9월 30일 접수, 2005년 12월 1일 채택)